

문화부장관, 관련단체장과 간담회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8월 5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민재기(사진)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관련 업계 단체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인쇄 출판 업계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민재기 인쇄문화협회장과 출판관련 단체장 들은 8월 6일 오후 2



시에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을 만나 업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곽득룡회장, 인력난특별법 제정건의

곽득룡(사진) 대한인쇄정보연합회 회장은 한나라당 이회창대통령후보에게 인력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곽회장은 7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회창후보를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각종 인력난 해소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갈수록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기 인적자원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이에 대해 ‘중기 인적자원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인력난을 단순히 취업대책으로만 접근해선 곤란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고용허

가제를 포함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병역특례제도도 더 연장해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생활보장과 경영위험에 대비하는 공제제도도입,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중기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97년 공약했던 중소기업부 승격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명진아트, 코스닥시장 진출

국내 유명 CD 자켓 등을 기획, 인쇄하고 있는 (주)명진아트(대표 박장선)가 지난 7월 24일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코스닥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지난 7월 24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13개 기업을 심의한 결과 명진아트, 산성피앤씨 등 8개사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명진아트를 비롯한 이들 기업들은 공모를 거쳐 9~10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게 된다.(주)명

진아트는 1997년 법인전환 이래, 국내 음반 시장에서 감각적인 Jacket을 기획, 제작하여 관련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모, GOD, 신승훈, 엄정화, 왁스, JTL, SES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가수들의 CD Jacket을 기획, 제작해 인정을 받고 있다.

명진아트는 인쇄기계(일본 미쓰비시 1대), 중절기계(독일 하이델베르그 1대), 접지기계(독일 하이델베르

그 1대), 톱슨기(일본 SANWA 1대), 채단기계(1대), 전산편집기(매킨토시 4대), 필름현상기(1대), 밀착기(2대), 소부기(1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기획에서 제작까지 일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총 35명이며, 예비심사 청구는 지난 4월 2일 실시했으며, 주관사는 교보증권이다.

한편, 인쇄업체 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는 정문정보, 보진재, 한진P&C, KD미디어 등 4회사이며, 명진아트는 5번째 코스닥 등록업체가 된다.

경인쇄조합, 오사카조합과 자매결연



◆ 오사카 조합 임원진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 오사카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방문하여 기념촬영하는 모습

서울경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오는 9월17일 서울에서 일본의 오사카후(大阪府)그래픽서비스협동조합과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한다. 이에 앞서 서울경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7월 29일 오사카그래픽서비스협동조합을 방문해 정보교환회의를 열고 한일 친선교류를 도모했다. 이번 방일에는 김학규 이사장을 비롯해 업계 원로분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오카(岡) 이

사장은 “금년 9월17일에 서울에서 조인식을 갖는 한편, 내년에는 한국에서 견학을 하고, 2004년에는 5월

에 오사카에서 JP기재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견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형태로 교류를 하고 싶으며, IT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배우고, 상품의 품질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교류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이사장은 “한일 교류를 위해 몇가지 안을 준비했으며, 서로 의견을 모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어느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인쇄사정에 관해 임원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한일 인쇄교류에 많은 역할을 했다.

한편 방문단은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오사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관장 안정열)를 방문, 수출상담을 장시간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코트라 사업의 제1목표를 인쇄물 수출증대에 두기로 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청주시의원, “직지” 상표등록

청주시의회 K의원(43)이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약칭인 ‘직지’로 상표권을 또 다시 특허청에 등록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특허청 등에 따르면 3선인 시의원 K씨는

2000년 11월 ‘직지’라는 이름의 상표권 4건을 특허청에 출원해 이 가운데 1건을 지난 1월 등록했다. K의원이 등록한 상표권의 지정 상품은 한지, 인쇄활자, 악보, 노래책, 만화책, 서적, 잡지 등이다.

서울조합 장학금수여식



◆서울조합은 8월 14일 조합원사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수곤)은 8월 14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조합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수여식을 거

행했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금강기획 등 조합원사 직원 자녀 23명으로 각각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고수곤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쇄문화업계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아울러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서울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생선발 기준은 조합원사 직원으로서 5년이상 근속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이어야 한다.

삼국유사 판본 국보-보물로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고대사의 핵심 사료인 삼국유사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보물 419호인 광영대씨의 개인소장본 삼국유사 권3~5를 국보로 승격하고,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권2)과 부산 범어사 소장본(권4~5)을 비롯, 규장각 소장본(권1~5), 고려대도서관 소장

본(권3~5)을 각각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곽씨 소장본은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유일본으로 전해지는 간행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14세기 말의 것이다.

규장각 본은 학계에서 흔히 참고하는 조선 중종 7년(1512년)의 정

덕본으로 삼국유사 중 낙장(落張)없이 각권이 완전히 보존되고 인쇄된 시기도 가장 빠른 것이다.

고려대 소장본은 정덕본 중 유일하게 구결(口訣·한문 사이에 넣은 토)로 현토(懸吐·한문에 토를 더는 일)된 희귀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불교문화사 및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불교경론서인 초조대장경 2종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부,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식

문화관광부는 7월 31일 오전 11시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2002년 상반기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수상자는 이광진/홍은영(그리스로마신화), 박성우(나우), 이원

복(먼나라 이웃나라), 강은영(아아), 전극진/양재현(열혈강호), 임재원(짱) 등 8명(6종)이 선정되어 김성재(金聖在) 장관으로부터 문화관광부장관 상패 및 상금 각 300만원을 수상하였다. 선정된 만화들은 2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작품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로서, 특히 독자층의 실질적인 수요와 취향을 반영하고 국내 만화계의 흐름을 대표할만한 우수한 작품들로 평가되었다. 총 639개 만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중성과 상품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6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 아동도서 크게 증가

올 상반기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납본된 도서는 1만8,588종(만화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부수도 전년동기 대비 5.1%가

증가한 6,444만 400부로 나타나 종수와 부수가 모두 증가했다. 평균 발행부수는 3,467부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추세를 보였다. 상반기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

동도서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과 만화 분야의 감소로 볼 수 있다.

아동도서의 발행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올 상반기엔 종수에서는 43%, 부수에서는 무려 57.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아동물 출판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옛 인쇄문화' 제주도전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제주교육박물관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옛 인쇄물들을 전시하여 제주도민 및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훌륭한 옛 인쇄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

절' 등 우수한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순회전에는 직지,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영인본 및 복원판 등 7종 42점이 출품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인쇄 체험의 장이 이어진다.

●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행사추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애니메이션·음악·캐릭터·출판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 'DICON(Digital Contents Promotion) 2002' 와 방송 프로그램 전문 전시회 'BCWW(Broad Casting World Wide)2002' 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 전시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다.

DICON(www.diconexpo.com) 과 BCWW(www.bcww.net)는 지난해 각기 다른 행사로 치러졌으나, 올해부터 통합 전시회로 치뤄진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진흥원과 아리랑 TV가 공동 주관하는 'DICON 2002 & BCWW 2002' 는 콘텐츠 분야의 제작업체·유통사·

품질우선주의 -----

PS판 품질이 곧 인쇄의 품질-



세일의 SI 시리즈-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첨단 PS판 생산기술 개발로 품질을 높인
세일 PS판의 SI 시리즈로 귀사의
인쇄품질을 한층 높이십시오.

